

광주 기독교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사전자문 지원' 광주 2개소 선정 사전자문 통과면 예비평가 면제... 등재기간 획기적 단축

광주 남구 기독교유산,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화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Upstream)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교교기지'·'별서정원과 원림' 2개소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Upstream)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들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교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이끌어낸



광주 남구 오연기독교교



광주 환벽당

거점이다. 광주지역에는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오연기독교교·우일선 선교사 사택·선교사 묘역 등을 포함한 기독교교기지가 형성돼 있다.

한국기독교교기지는 문맹률 저하와 여성교육을 통해 민중의식을 깨움으로써 제국주의 압제에 항거한 평화적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적·사상적 토대로 인정받

고 있다. 기독교교기지를 보유한 광주 남구와 전남 목포·순천 등 전국 8개 지자체는 '한국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하고 있으며,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공동협력을 통해서도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별서정원과 원림'은 15~16세기 조선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 조성한 별서와 원림

으로 구성된 인문주의적 문화경관이다. 별서정원과 원림은 광주 환벽당·취가정, 담양 소쇄원·식영정 등을 포함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극대화한 한국 특유의 자연관을 보여준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가유산청

으로부터 사전자문 준비를 위한 연구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유산의 사전자문 신청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해 향후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전남통합특별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특구' 설정을 통해 지자체 간 경계로 단절됐던 유산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황인제 시 문화체육실장은 "세계유산 사전자문 선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며 "사전자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세계유산 등재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청 열린노조 행정통합 대응 세미나 개최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무원 노동조건을 둘러싼 대응 논의가 본격화된다.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오후 2시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공무원 노동조건 사수를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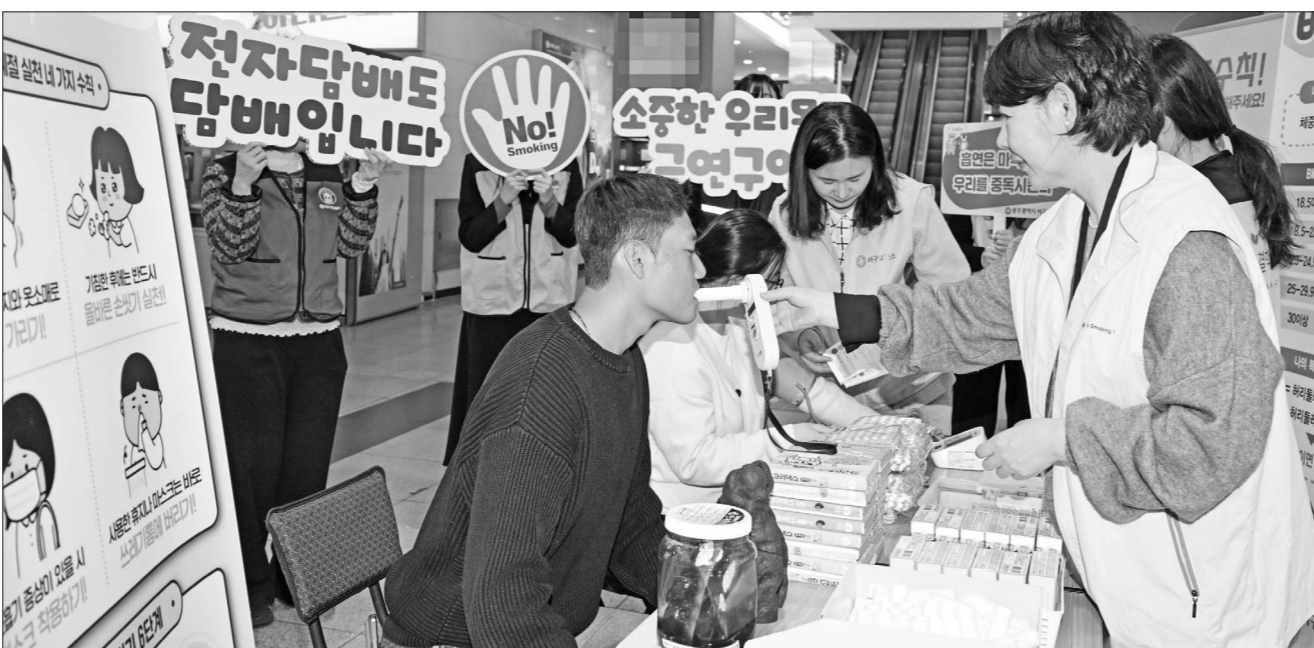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공유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권리 변화와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 개편과 인사·근무체계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의 불안 요인을 찾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노조 측은 기존 설명회 방식과 달리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보장하는 형태로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가 지난 1월 진행한 직원 설명회는 실명 의견 요구와 일방적 진행 방식으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강연은 전남연구원 김대성 박사가 맡는다. 김 박사는 행정통합 실무지원 TF 단장과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통합 특별법 초안 단계부터 참여한 전문가로, 통합 이후 행정체계 변화와 조직문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공노총도 조직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공노총은 지역 노조위원장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행정통합 TF를 운영 중이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의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불철 감염병 예방 및 금연 캠페인 8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에서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철 감염병 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생활 속 자원순환 확대...광주, 챌린지 전개

동 행정복지센터 자율 참여...연말 평가 통해 총 2000만원 포상 신규 시책 발굴·우수사례 확산...행정·환경 전문가 컨설팅 운영

광주시가 단독주택·원룸 등 밀집 지역의 자원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순환 도전 있기'(챌린지)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역 9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광주형 자원순환 챌린지' 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해 각 센터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동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시책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통해 공동주택에 비해 분리배출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분리배출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도전 있기(챌린지) 종료 후 최종 평가를 진행, 우수 행정복지센터 20곳을 선정, 대상 수상 센터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는 우리동네 맞춤형 시책,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 자원순환 관련 업무 성과 평가 등 3개 부문에서 총 17개 지표로 진행한다.

올해 평가 지표에는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폐기물 등 혼합배출 금지를 위한 주민 인식 개선 지표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 각 동 특성에 맞춘 시책 발굴을 강화하고 지난해 우수사례인 '교육기관 연계 자

원순환 시책'을 확산하기 위한 지표도 중점 반영했다.

광주시는 5월부터 도전 있기(챌린지) 운영을 본격화하고 6월부터는 컨설팅단을 운영해 시책별 중간 점검과 맞춤형 평가(피드백)를 제공할 방침이다. 12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과 공유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컨설팅단은 광주기후에너지지원원과 함께 행정·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미경 시 자원순환과장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챌린지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많은 행정복지센터들이 참여해 자원순환 문화가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정준호 주최 '자원순환정책포럼' 성료

GR 산업계 구조적 문제 진단·해결책 모색 등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배, 장철민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제8차 자원순환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포럼은 GR(우수재활용제품) 산업계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및 환경보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GR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녹색전환 분야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경보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GR

산업계를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준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GR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GR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GR 인증제도의 표준 개발·제도 홍보 등 예산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토대로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와 협력해 후속 조치 포럼 개최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GR 산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가운데)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배, 장철민 의원과 함께 개최한 '제8차 자원순환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